2020. 7. 20 480호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동물에게 먹이를 준 후 청소하는 것을 의무화

환경·안전 개인 물병을 이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 확대 설치
태양열 에너지 데이터 지도 제공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안티 스모그 타워' 설치
홍수 예방을 위해 '알라와이 운하 프로젝트' 추진

도시교통 신규 인터넷예약택시를 '전기자동차'로 한정

도시계획·주택 대규모 빈민가 재생사업 추진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하노버	이희재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뉴욕	윤규근
	이수진
	이정근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영준
	강기향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상파울루	김현아
스톡홀름	문선우
	허윤회
바르셀로나	진광선
	박정수
싱가포르	이은주
런던	정기성
비엔나	안병선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박재호
오사카	권용수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김용훈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시드니	정용문

동물에게 먹이를 준 후 청소하는 것을 의무화

일본 오사카市 / 환경·안전

일본 오사카市는 공공장소에서 동물에게 먹이를 준 후 청소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생활환경 저해나 주민 불편을 고려하여 먹이를 준 후 청소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오사카市 폐기물 감량 추진과 적정 처리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배경 및 목적

○ 오사카市는 동물에게 먹이를 준 후 청소를 하지 않아 생활환경이 현저히 저해되고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 비둘기나 까마귀 등에게 빵과 같은 먹이를 주고 방치해 오물이나 분뇨에 의한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스미요시구(住吉区)와 아비코역 앞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

○ 이에 市는 '오사카市 폐기물 감량 추진과 적정 처리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大阪市廃棄物の減量推進及び適正処理並びに生活環境の清潔保持に関する条例)(이하 '조례') 개정을 추진

- 개정 조례에는 공공장소의 청결 유지를 위해 비둘기, 까마귀, 그 밖의 동물에게 먹이를 준 후 청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음

○ 市는 조례 개정과 함께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

주요 내용

○ 조례 개정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까마귀, 그 밖의 동물에게 먹이를 준 사람에게 청소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장소 또는 그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지키는 것이 목적

○ 조례 개정 내용

- ① 도로와 같은 공공장소 또는 그 주변에서 동물에게 먹이를 준 사람은 먹이나 동물의 분뇨, 그 밖의 오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털이나 깃털이 흩어지지 않도록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② 시장은 이를 위반해 생활환경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기한을

정해 필요한 개선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③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5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의 절차는 (i) 구두로 주의 등을 받았음에도 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지도 조치, (ii) 지도를 받았음에도 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문서 권고 조치, (iii) 문서 권고에도 따르지 않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개선명령 조치, (iv)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위의 ①과 ②는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③은 주지 기간을 고려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평가

○ **조례 개정에 대해 초기에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으나, 반대하는 이유를 市가 면밀히 검토하고 개정 취지와 개정할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점이 특기할 부분**

-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지 않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고양이 등 동물과의 행복한 공생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나 일반시민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반대 이유로 많이 제기
- 市는 반대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에 대해 공공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함이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

https://www.city.osaka.lg.jp/kankyo/page/0000488654.html

https://www.city.osaka.lg.jp/kankyo/cmsfiles/contents/0000488/488654/hurippu.pdf

https://www.city.osaka.lg.jp/kankyo/cmsfiles/contents/0000009/9860/R1-37sinkyu.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개인 물병을 이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 확대 설치

일본 교토市 / 환경·안전

일본 교토市는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교토市 플라스틱 자원순환 액션: 플러스 액션 12'를 책정·추진하고, 페트병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를 위해 '개인 물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수 스폿 확대에 관한 연계 협정'을 민간기업과 체결

배경 및 목적

○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이 큰 문제로 대두

- 해양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 양이 전 세계 추계 연간 800만 톤을 넘어 이 상태라면 2050년에 이르러서는 바닷속 해양 생물보다 플라스틱 양이 많아질 것으로 추산

○ 교토市는 2019년 10월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외에 쓰레기 감량, 지구 온난화 대책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교토市 플라스틱 자원순환 액션: 플러스 액션 12'(京都市プラスチック資源循環アクション～プラスアクション12～)(이하 '액션')를 책정하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력 추진

- 액션은 2020년 차기 '교토市 순환형 사회 추진 기본계획'(京都市循環型社会推進基本計画) 책정에 앞서, 플라스틱 문제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바로 실시해야 할,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12개 중점대책을 정리한 것
- 12개 중점대책은 다음과 같음
  - ① 소매점의 비닐봉지 무료배포 금지(유료화) 철저, ② 시내의 급수 스폿 관련 정보 발신, ③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계몽 활동 및 행사 시 급수기 설치, ④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을 위한 검토와 대(對)정부 제안, ⑤ 플라스틱 용기 포장 분별(分別) 관련 계몽·지도 강화, ⑥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강화, ⑦ 일회용 플라스틱 절감을 위한 모금 캠페인 실시, ⑧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사업자 지원, ⑨ 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억제·분별(分別) 지도 지원, ⑩ 일회용 플라스틱 삭감 방침 책정, ⑪ 행사나 회의 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⑫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우수 제품 관련 정보 발신·이용 촉진

○ 또한 市는 페트병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민간시설을 불문하고 다양한 시설에 급수기를 설치하고 개인 물병 이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개인

물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수 스폿 확대에 관한 연계 협정'(이하 '협정')을 민간기업과 체결

협정의 주요 내용

○ 협정의 목적은 市와 민간기업이 연계·협력해 많은 장소에서 개인 물병 등으로 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페트병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수돗물 이용 촉진, 시민의 생활습관 개선,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쓰레기 감량, 지구 온난화 대책이나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것임

○ 市와 민간기업은 페트병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 분위기를 형성하고 공공·민간시설 등에 급수기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개인 물병 이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데 협력

- 市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 관련 홍보, 市 시설에 급수기 설치, 민간시설 등에 급수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급수기 설치 기업 지원
- 민간기업은 市 시설에 급수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기기 제공 등을 지원하고, 민간시설 등에 급수기 설치 확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활동, 市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삭감·수돗물·市 정책 등의 홍보에 적극 협력

○ 협정은 간사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체결

-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등에 저렴한 가격의 수도 직결식 급수기를 설치하고 싶다'는 뜻을 제시하면서 추진
- 市와 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약 3년간 급수기 1,000대 설치를 목표로 함

https://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263120.html

https://www.city.kyoto.lg.jp/kankyo/cmsfiles/contents/0000259/259197/bessi.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태양열 에너지 데이터 지도 제공

프랑스 보르도市 / 환경·안전

프랑스 보르도市는 태양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일반 시민에게 권장하고, 태양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가구별 실제적인 태양에너지 활용효율을 한눈에 알기 쉽게 표기하고 태양전지판 설치 시 연간 예상 전기생산량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 지도를 제공

배경

○ 바람, 파도, 태양열과 같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태양열 전기 발전소, 풍력 발전소 등의 건설과 활용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 특히 태양전지판을 큰 면적의 대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자동차 주차장의 그늘막을 겸하는 등 도심에서도 실용성이 커 각광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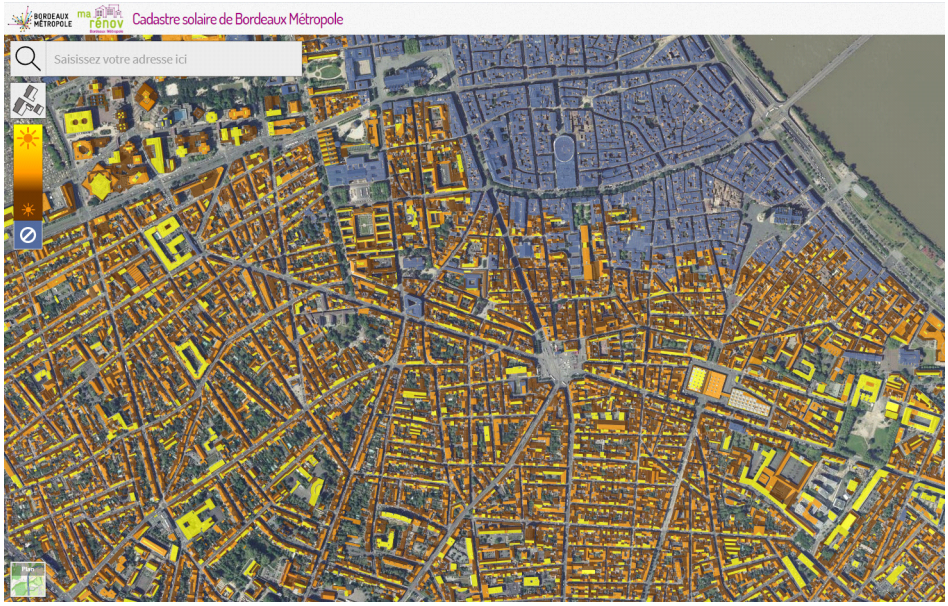
○ 다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 태양에너지를 직접 활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며, 설치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큼. 아울러 일반인이 자택의 방위(方位), 일조량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

- 가장 효율이 높은 지속가능에너지인 태양에너지는 아직은 개개인이 직접 활용을 고려하기에는 걸림돌이 존재. 접근성이 떨어지고 설치비용 대비 효율성을 사전에 알 수 없는 점이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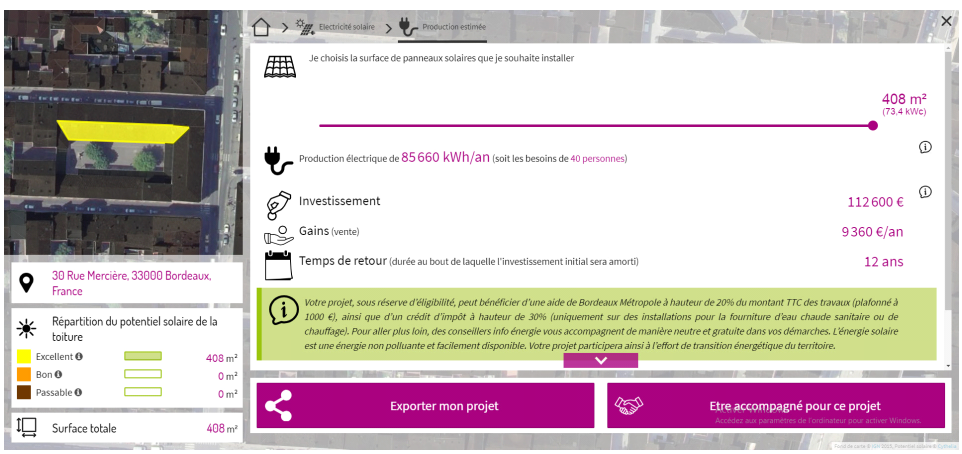
주요 내용

○ 보르도市는 태양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권장하고 태양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가구별 실제적인 태양에너지 활용효율을 한눈에 알기 쉽게 표기하고 태양전지판 설치 시 연간 예상 전기생산량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 지도를 제공

- 市 전체 건물 각각의 일조량을 색깔로 표시하여 한눈에 자기 집의 지붕 일조량과 태양전지판 설치 가능 면적, 설치비용, 설치 시 연간 전기생산량, 초기 투자비용이 모두 회수되는 시점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음



[그림 1] 보르도市의 건물별 지붕의 평균 일조량을 색깔로 표시.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일조량이 좋음. 상단의 회색 부분은 유네스코 문화재 지정 구시가지로 지붕에 구조물 설치가 금지된 지역



[그림 2] 자기 집의 지붕을 선택하면 설치 가능한 면적이 표시. 설치 예상 비용, 연간 에너지 생산량, 투자비용 회수 시점 등이 표시됨

- 위의 그림을 살펴보면, 남향 지붕이 일조량이 좋으며, 면적이 약 408제곱미터, 연간 예상 전기생산량이 85,600kWh이며, 초기 투자비용은 약 112,600유로(약 1억 5천만 원)이고,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게 되는 시기는 12년 후로 예상

○ **市는 또한 태양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과 태양전지판 설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도 제공**

- 市 도시건축과에서는 각 주택의 지붕 형태에 맞는 설치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해줌
- 주택 리노베이션 공사비의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도 지원(※ 세계도시동향 454호 원고('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정보 한눈에' 플랫폼사이트) 참고)
- 태양전지판을 설치할 경우 전체 공사비의 약 20%, 최대 2,000유로까지 지원
- 필요시 전문가와의 연계도 주선

http://marenov.bordeaux-metropole.fr/je-renove/maison-individuelle/

https://marenov-bordeaux-metropole.cadastre-solaire.fr/?mapCenter=|44.8264774888381|-0.5765891075134278|&mapZoom=17

http://www.bordeaux.fr/ebx/pgPresStand8.psml?_nfpb=true&_pageLabel=pgPresStand8&classofcontent=presentationStandard&id=115851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안티 스모그 타워’ 설치

인도 델리NCT / 환경·안전

인도 델리NCT 정부는 대기오염 개선방안으로 안티 스모그 타워(Anti-Smog Tower)를 시범운영 중.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지역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배경

○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 비주얼(Air Visual)에 따르면, 전년도 겨울철 대기오염은 델리NCT 정부의 다양한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위험수위에 도달**

-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9년 11월 3일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0㎍/㎥)의 150배를 초과하는 1,542㎍/㎥를 기록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이 절실

○ **전년도 미세먼지는 이상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높은 미세먼지 농도가 평년 대비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보다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

- 농촌지역 화전(火田), 자동차 매연, 축제 폭죽 등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한 대응에 한계

주요 내용

○ **델리NCT 정부는 대형 공기정화장치인 ‘안티 스모그 타워’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전년도에 수립하였으며, 금년도에 1개 타워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

- 안티 스모그 타워는 인도 공과대학(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과 미네소타 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의 협업으로 개발
- 라즈팟 나가르(Lajpat Nagar)에 위치한 전통시장 구역에 시범 설치

○ **안티 스모그 타워는 4개 공기 흡입구가 있는 약 6m 높이의 원통형 구조로, 설치비는 70만 루피(약 1,200만 원)이며 월 관리비는 3만 루피(약 50만 원)로 예상**

- 흡입된 공기 내 오염물질을 80% 이상 제거하고 다시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티 스모그 타워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25만~60만 제곱미터 내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1만 5천여 명의 주민에게 대기 질 개선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

○ 안티 스모그 타워 시범운영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예정

- 한 전문가에 따르면, 지역 전역에 걸쳐 총 213개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 그런데 안티 스모그 타워가 지역의 기후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 일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

[그림 1] 설치된 안티 스모그 타워 모습

정책 평가

○ 안티 스모그 타워의 공기청정 효과를 통해 지역 내 대기오염 완화를 기대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지역 환경 개선에도 도움

○ 실험적 방안이지만,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https://www.airvisual.com/air-pollution-information/news/airvisual-data-hazardous-delhi-pollution-is-the-longest-on-record

https://www.businesstoday.in/current/economy-politics/delhi-smog-tower-first-giant-air-purifier-to-combat-air-pollution-to-be-inaugurated-today/story/393085.html

https://www.deccanherald.com/national/north-and-central/delhi-polls-bjp-will-install-60-smog-towers-after-coming-to-power-in-delhi-says-bjps-manoj-tiwari-798480.html

https://www.inc42.com/buzz/delhi-now-has-an-anti-smog-tower-but-its-not-the-solution-to-air-pollution-say-experts/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delhi-needs-213-smog-towers-will-build-1-in-cp-on-trial-basis-govt-in-sc-6154599/

https://www.oneindia.com/india/explained-what-are-the-smog-towers-bjp-has-promised-to-install-3022825.html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홍수 예방을 위해 '알라와이 운하 프로젝트' 추진

미국 하와이州 / 환경·안전

미국 하와이州 호놀룰루市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홍수 예방을 위한 '알라와이 운하 프로젝트'를 시행. 하지만 대규모 자금 투입과 프로젝트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 내에서 수년째 찬반 논쟁이 계속됨.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현장 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프로젝트 중단을 목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배경

○ 2018년 4월 미국 하와이州 카우아이(Kauai)와 오아후(Oahu)에 집중호우가 내린 데 이어 나흘 만에 州 전역에 52인치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향후 발생하는 홍수 피해의 정도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

- 앞서 1965년에 발생한 폭풍과 1992년 9월 발생한 허리케인 '이니키'로 인해 알라와이 운하가 범람해 와이키키에 홍수를 발생시킨 바 있음
- 특히 와이키키, 맥컬리, 모일리일리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일 뿐 아니라 하와이 경제의 중심지로, 침수될 경우 건물 및 시설물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육군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알라와이 운하 일대에 초대형 홍수가 발생할 경우 알라와이 운하 주변 6천여 개의 건축물이 파손되고, 경제적 손실액은 약 11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주요 내용

○ 미국 하와이州 오아후(Oahu) 호놀룰루(Honolulu) 알라와이 운하 프로젝트(Ala Wai flood control project)는 이올라니 스쿨 인근 마노아-팔롤로 배수로(Manoa-Palolo Drainage Canal)에서부터 2마일 구간을 준설(浚渫)하는 대규모 사업임

-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육군 공병대의 홍수 통제 방안에는 알라와이 운하 유역에 4피트 높이의 벽을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알라와이 운하 유역과 와이키키를 보호하기 위해 홍수 통제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4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알라와이 운하를 따라 4피트 높이의 벽을 설치하고, 상류에는 대형 유수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핵심

- 또한 육군 공병단은 홍수 경보 시스템 구축, 어류 및 야생동물을 위한 쉼터 설치 등을 이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추진. 운하 일대에 조성될 기반시설과 관련해 이번 프로젝트가 호놀룰루市에 국한된 건설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재산 손실의 위험을 줄이는 필수적인 프로젝트라고 밝힘

[그림 1] '알라와이 운하 프로젝트'가 한창인 호놀룰루市 일대 전경(통신원 직접 촬영)

○ **알라와이 운하 프로젝트는 호놀룰루市 예산에서 지원되는 총 1,800만 달러 외에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약 4억 4,507만 6,000달러가 투입될 예정**

- 2018년 연방정부가 참여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알라와이 운하 프로젝트가 장기 재해 복구 투자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연방정부는 약 4억 4,507만 6,00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당시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이번 프로젝트가 파손된 운하 방벽(防壁)과 계단 보수공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

○ **하와이 州정부, 호놀룰루 市의회, 육군 공병단, 시민단체 등이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구성해 비용 분담 및 예산 배분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왔음**

- 특히 호놀룰루 市의회는 2017년 알라와이 운하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실시된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참여해 해당 데이터를 정밀화하는 것은 물론 탐색 및 조사 작업을 수행
  - 특히 육군 공병단은 이번 프로젝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비정기적으로 프로젝트의 홍수 위험 저감효과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해왔음. 이 설명회에는 하와이 주지사, 호놀룰루 시장, 하와이州 국토 및 자연자원국, 육군 공병단의 최고 책임자, 핵심 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

[그림 2] 운하 바닥에 침전된 쓰레기 및 침전물. 알라와이 운하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통신원 직접 촬영)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

○ 현재 이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알라와이 운하 프로젝트는 올 1월 이올라니 스쿨(Iolani School) 일대를 시작으로 육군 공병단의 지휘하에 지반 공사에 착수해 2021년에 완공 예정

○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여론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특히 지역사회단체 '프로텍트 아워 알라와이 워터쉐즈(Protect Our Ala Wai Watersheds)'는 알라와이 운하 프로젝트 중단을 목적으로 예비적 금지명령소송(preliminary injunction)을 지역 법원에 제기
  - 이 단체는 이번 프로젝트가 알라와이 운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州정부와 市정부의 예산은 물론 연방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등 급하게 일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
  - 州 법원은 프로젝트 중단을 목적으로 한 소송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 또한 프로젝트 강행을 반대하는 주민들 중에는 알라와이 운하 프로젝트로 인해 살던 집에서 강제 퇴거를 당할 위기에 처한 주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알라와이 일대의 홍수 위험이 줄어들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市정부에 제출
  - 운하 프로젝트 건설 사업에는 유수지 등의 건설도 포함되어 있음
-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육군 공병단은 '마노아(Manoa)' 밸리 일대의 연간 강우 총유출량(storm runoff)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에 대규모 유수지를 건설하는 것은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계획안을 발표해 운하 재건 및 홍수 경감 프로젝트에 힘을 실음
  - 연방정부와 市정부는 '육군 공병단의 새 계획안이 수년간 제기된 민원과 소송을 잠재울 수 있는 절충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음
  - 하지만 이 같은 절충안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로젝트 예산에 작은 강과 항구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 총 6,250만 달러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예산 배분과 비용 분담 등에 대한 지역사회와 市정부, 육군 공병단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
  - 앞서 하와이 州의회는 이번 프로젝트에 약 2억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그런데 해당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약 1억 2,500만 달러에 대해 州정부가 일종의 참여증명서(Certificates of Participation)를 주민들에게 발매해 이를 통해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계속됨

https://www.poh.usace.army.mil/Missions/Civil-Works/Civil-Works-Projects/Ala-Wai-Flood-Risk-Management-Project/

https://www.civilbeat.org/2019/04/ala-wai-canal-flood-control-project-does-llittle-to-clean-up-the-polluted-waterway/

https://www.hawaiinewsnow.com/2019/10/02/us-army-corps-engineers-shows-flexibility-with-new-proposal-controversial-ala-wai-flood-project/

https://www.staradvertiser.com/2019/02/05/hawaii-news/ala-wai-flood-control-project-under-fire/

https://www.citylab.com/environment/2019/12/ala-wai-canal-flood-control-opposition-hawaii-land-rights/603655/

https://www.hawaiipublicradio.org/post/ala-wai-flood-control-project-wins-city-council-backing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신규 인터넷예약택시를 '전기자동차'로 한정

중국 심천市 / 도시교통

중국 심천(深圳)시는 신규로 등록하는 인터넷예약택시를 순전동 소형자동차로 한정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인터넷예약택시 경영자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강화하여 기사와 승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배경

○ 중국에서는 인구수 대비 부족한 택시 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인터넷예약택시를 합법적인 택시업으로 인정

- 2016년 7월 27일 중국 교통부 등 7개 부처에서 인터넷예약택시 경영서비스관리 잠행방법(网络预约出租汽车经营服务管理暂行办法)을 발표한 이후 중국 내 인터넷예약택시가 합법화되면서 중국 전역의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정책을 발표

○ 심천(深圳)시의 경우, 市가 2017년 1월 24일 심천市 인터넷예약택시 경영서비스관리 잠행방법(深圳市网络预约出租汽车经营服务管理暂行办法)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예약택시 업종이 규범화·체계화되었고, 인터넷예약택시가 현재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 2019년 9월 기준으로 총 10개의 인터넷예약택시 업체가 심천市에서 영업 중이며, 인터넷예약택시 자동차 운송증이 59,892장, 운전자증이 76,858장 발급된 것으로 집계
- 심천市는 인터넷예약택시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인터넷예약택시 영업에 대해 규정한 '인터넷예약택시 경영서비스관리 잠행방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부터 시행

주요 내용

○ 앞뒤 실내공간 지표인 축간거리가 2,650㎜ 이상인 순전동 소형자동차만 심천市의 인터넷예약택시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음

○ 인터넷예약택시 안전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택시 기사와 승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예약택시 업체는 택시 기사의 건강 및 자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택시 기사에게 운전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련 사항을 市 교통부 운수 주관부서에 보고하도록 함
- 인터넷예약택시 업체는 승객이 지정한 출발지에서 반경 3㎞ 범위 내에 분포하는 예약대기 차량 수와 요금산정방법을 정확하게 공개하여 승객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 2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했던 인터넷예약택시의 업무 데이터 보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승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예약택시 기사 불만 처리 제도를 마련하여 승객이 승차 규정을 위반하면 택시 기사는 해당 승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택시 업체에서는 택시 기사에게 경제적으로 혹은 기타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현행 규정상 일반택시와 인터넷예약택시의 자격증이 다르지만, 두 자격증 취득조건 및 시험내용에는 차이가 없음**

○ **市는 운전자의 취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취업 제한을 줄이기 위해 일반택시 운전자 자격증과 인터넷예약택시 운전자 자격증의 상호 인증을 시행하기로 함**

- 일반택시 자격증과 인터넷예약택시 자격증의 상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市 거주자이거나 심천특구 거류허가증을 보유할 것
  -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신청 시점에 면허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을 것
  - 교통사고나 난폭운전과 같은 범죄 기록이나 약물 복용 및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폭력범죄 전력이 없을 것
  - 신청일로부터 3년까지는 운전면허증의 취소 조치를 받을 기록이 없을 것

향후 전망

○ **市가 신규 인터넷예약택시 차량의 등록조건을 순전동 소형자동차로 한정했다는 점에 미루어보았을 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가솔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인터넷예약택시에서 점차 배제될 것으로 전망**

- 市는 2018년 '심천블루 지속가능한 행동계획(深圳蓝"可持续行动计划)'을 발표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650682364288531585&wfr=spider&for=pc

http://sz.people.com.cn/GB/n2/2019/1201/c202846-33592935.html

http://www.sz.gov.cn/jw/zwgk/jtzx/gzdt/czdt/201911/t20191120_18793077.htm

---

문 혜 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대규모 빈민가 재생사업 추진

미국 시카고市 / 도시계획·주택

미국 시카고市는 지역 내 빈부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대규모 빈민가 재생사업을 추진. 또한 대기업 등의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市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해 일자리를 창출

배경 및 목적

○ **시카고市의 남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빈민가로 인식**

- 미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사회라고 불리는 시카고 남부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흑인 및 저소득층
  - 남부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서 세수 기여도가 낮은 만큼 정책적으로도 소외되어온 측면이 있음
  - 도시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만큼 공공 문화예술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경찰서, 관공서 등의 기본적인 공공시설 또한 중산층 거주지역 대비 부족
  - 폭력, 마약, 살인, 강도, 총기 사고 등이 타 지역보다 빈번하게 일어나 빈민가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
  - 이러한 이유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투자가 저조
  - 관광객들 역시 이 지역을 피하게 됨으로써 관광업, 숙박업, 요식업 등 지역경제 성장이 지체

○ **2019년 市 최초로 흑인이 시장에 당선된 후 적극적인 변화 모색**

- 로리 라이트풋(Lori Lightfoot) 시장은 시카고 최초의 여성 흑인 시장으로, '폭력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강력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빈민가 및 저개발 지역에 적극 투자
  - 시카고의 남북을 경계로 불균형적으로 개발되어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섬
  - 당초 이러한 정책을 반대하던 시민들도 일자리 창출, 도시 이미지 개선, 빈민 지역 개발 등을 통해 전반적인 도시안전 상승, 관광객 유입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주요 내용

○ **소외계층 주거지에 2천만 달러를 투입해 지역산업 육성 및 임대주택 재건**

-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지역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 및 시행
  - 저개발 지역인 남부와 서부에 '기회의 땅(Opportunity Zone)' 135개 구역을 지정해 지역산업 육성, 임대주택 건설, 도시개발 추진과정에서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에 지역주민 채용 등을 추진
- 대규모 도시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 장려
  - 오하이오州 신시내티에 본사를 둔 5/3 은행(Fifth Third Bank), 스타벅스, BMO 해리스 은행 등이 수백만 달러 지원
  - 市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민간기업의 투자 적극 활용.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공제 프로그램 운영
  - 민간기업은 세금공제 혜택과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얻고, 저개발 지역 및 빈민가 주민들은 민간투자와 도시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
  - 중산층 거주지역 주민들 역시 전반적인 도시안전 제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어 찬성 의견이 다수

향후 계획

○ **저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회의 땅' 정책을 통해 균형 잡힌 경제성장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 일리노이 주지사는 향후 시카고뿐만 아니라 州 전역의 저발전 및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1,200만 달러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 대규모 도시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타 지역의 전문가 등 고급인력을 채용해 지역산업 활성화 추진
  - 또한 도시개발에 필요한 건설인력 및 자재 유입을 통해 항공, 항만, 운송 등 다방면의 일자리 창출
  - 지역개발사업에 지역 인력을 대거 모집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 저개발 지역에 공공 문화예술기관 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 시카고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대형 미술관, 박물관에 이어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기관을 개설할 예정
  - 관광객 유입 효과는 물론 해당 기관 중심으로 식당, 소매점 등이 들어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또한 문화예술기관 설치를 통해 빈민가로 인식되던 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킴

으로써 인구 유입 효과 기대

- 해당 저개발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안전 때문에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도심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그림 1] 민간투자를 통한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 개발계획

https://www.chicago.gov/city/en/depts/dcd/supp_info/opportunity-zones.html

https://www.chicagofed.org/publications/profitwise-news-and-views/2019/opportunity-zones-understanding-the-background-and-potential-impact-in-northeastern-illinois

https://chicagorealtor.com/what-you-need-to-know-opportunity-zones/

https://www.chicagotribune.com/columns/ryan-ori/ct-biz-opportunity-zones-chicago-ryan-ori-20190401-story.html

https://www.wbez.org/shows/wbez-news/chicago-developers-are-giving-opportunity-zones-a-try/41d369e8-e3e9-4f36-91df-4f0bbab52ef8

https://www.thecha.org

강 기 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80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7월 20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